

##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bada*)의 신학과 사회윤리적 함의

윤영돈 (인천대학교 교수 ·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객원연구원)\*

### I. 들어가는 말

### II. '바달'의 어휘 분포와 용례

1. '바달'의 어휘 분포
2. '바달'의 용례 종합

### III. '바달'의 범주와 의미체계

1. 공간 및 시간의 구별
2. 사람에 대한 구별: 성별(聖別) 및 태함
3. 성숙(聖俗)의 구별
4. 심판과 분리
5.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
6. 소결 및 쟁점

### IV. '바달'의 의미체계에 노정된 사회윤리적 쟁점

1. 거룩의 윤리적 변용과 이데올로기적 문제
2. 안식일에 담긴 시공의 거룩과 인간의 위상
3.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배타성 문제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2.52.02>

\* 주저자, danielyoun@inu.ac.kr

---

• ABSTRACT •

---

## The Theology of *badal* in the Old Testament and its Implications for Social Ethics

Yoon, Young-Don (Prof. Incheon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build theology as a semantic system of *badal* based on the usage of *badal* in the Old Testament and scrutinize its implications for social ethics. To this end, this researcher made use of the perspective of literary criticism as synchronic approach. In addition, in order to construct the theology of *badal*, this study referred to the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suggested by L. Berkhof: grammatical, historical,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 social ethical problems in *badal's* meaning system are explained by the ethical transformation and the ideological distortion of holiness, the holiness of time and space contained in the Sabbath, and the inclusive and exclusive attitude of faith communities toward foreigners. The boundary setting by *badal* is variable, depending on historical situations and *Zeitgeist*, and is associated with the problem of justice.

**Key words:** *badal*, Separation, Holiness in Space & Time, Sabbath, Inclusive & Exclusive Attitude, Justice

---

## I. 들어가는 말

그리스의 자연철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는 우주의 “아르케(*archē*)”를 한정할 수 없는 것, 즉 “아페이론(*apeiron*, 무한자)”에서 찾았다.<sup>1)</sup> 무한자는 생성도 소멸도 없고, 모든 것을 포함하고 통치하기에 “신적인 것 (*theion*)”으로 간주된다.<sup>2)</sup> 생성되고 소멸하는 것은 특정한 공간을 차지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생성된 것은 필연적으로 소멸한다. 그 이유는 생성되어 특정 공간을 차지한 자신의 “불의에 대한 벌과 배상을 시간의 질서에 따라 서로에게 지불하기 때문이다.”<sup>3)</sup> 하나의 사물이 특정 시공을 점유하게 되면 다른 사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에 사물의 소멸은 일종의 참회이자 속죄를 의미하며, 죽음은 자신이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과정일 수 있다. 시간과 공간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기본 틀인데, 아낙시만드로스는 특정 시공을 점유하는 것이 초래할 수 있는 정의(*justice*)의 문제를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이 그곳에 거주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고,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시간도, 공간도, 사람과 동물도 하나님께 속하는 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거룩함의 스펙트럼에서 하나님께 속한 것은 거룩하지만 멀리 떨어진 것은 부정하고 속된 것이 된다. 본고는 하나님에 의해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그 밖의 피조물이 거룩함을 부여받게 되는 히브리어 동사 ‘바달’에 주목하고자 한다. 히브리어 ‘바달’은 ‘나누다, 구분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택하다, 세우다, 분리하다, 배제하다’는 의미를 지니

1) Herman Diels und Walter Kranz,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I* (Germany: Weidmann, 1974), 89; 김인근, 강철웅, 김재홍, 김주일, 양호영, 이기백, 이정호, 주은영 역,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2007), 135.

2) 위의 책, 139.

3) 위의 책, 135.

고 있다. 연구자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어휘 분포 및 특징적 용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바달’의 의미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바달’의 의미체계(‘신학’)에 노정된 사회윤리적 함의를 논구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에서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용어인 ‘바달’의 의미체계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논문은 찾기가 힘들고, 다만 ‘바달’과 관련된 논의를 일부 언급한 논문들은 발견된다. 가령, 박경철은 성결법전에서 ‘안식일’ 주제를 다루는 대목에서 정(淨)과 부정(不淨)의 ‘구별’(바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별’(바달)한다는 측면에서 ‘바달’의 의미를 짧게 언급하고 있다.<sup>4)</sup> 한편 노세영은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의 제의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논문에서 히브리어 ‘바달’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분리’에 의해 세워진 창조질서(하늘, 땅, 물)에 대한 언급, 거룩은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언급, ‘분리’(경계선 확립)를 통해 완성된 우주적 창조질서가 제의적 질서를 반영한다는 언급,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이스라엘 공동체는 죄와 불결에서 공간적,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언급 등에서 ‘바달’의 주요 의미를 다루고 있다.<sup>5)</sup> 그런가 하면 배회숙은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과 의미를 다루는 논문에서 다윗 왕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을 ‘구별’(바달)하여 성전음악가로 세웠다는 언급과 함께 각주 18번에서 ‘바달’이 하나님의 창조행위에서의 ‘분리’(창1:4, 6, 7, 14, 18), 정(淨)과 부정(不淨)의 ‘구별’(레10:10; 11:47; 20:25), 이스라엘과 열국의 ‘구별’(레 20:24, 26; 스9:1; 10:11; 느9:2; 10:19; 13:3)에 사용되고 있음을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sup>6)</sup> 그러나 ‘바달’의 의미체계와 그것이 함의하는 사회윤리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다룬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4)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2005), 65.

5)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16(4)(2010), 14, 16, 25.

6) 배회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4)(2013), 73.

일정한 유의미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연구방법과 관련하여 통시적 접근(*diachronic approach*)으로서 ‘역사비평’보다는 공시적 접근(*synchronic approach*)으로서 ‘문학비평’의 관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구약성경을 ‘완성된 본문’으로 간주하면서 ‘성경 텍스트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종합적 의미체계로서 ‘바달’의 신학을 구성하기 위해 벌코프가 제시한 성경해석의 원칙인 ‘문법적 해석’에 집중하되, 관련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바달’의 용례에 영향을 준 ‘역사적 해석’의 측면을 검토하며, 바달의 종합적 의미체계로서의 ‘신학적 해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sup>7)</sup>

## II. ‘바달’의 어휘 분포와 용례

### 1. ‘바달’의 어휘 분포

‘바달’(**בָּדַל**)은 구약성경에서 총 41구절(43회)에 표현되어 있다. 성경별로 ‘바달’의 어휘 분포를 살펴볼 때, 레위기 7구절(8회), 에스라 6구절(6회), 창세기 5구절(5회), 신명기 5구절(5회), 민수기 3구절(3회), 역대상 3구절(3회), 느헤미야 3구절(3회), 에스겔 3구절(3회), 이사야 2구절(3회), 출애굽기, 열왕기상, 역대하, 아모스 각 1구절(1회) 순이다.

‘바달’의 어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위기(8회)와 에스라(6회)는 신학적 색채가 유사하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다. 민수기(3회)도 레위기 계열에 속한다. 물론 민수기가 내러티브 중심인데 비해, 레위기는 법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양자의 장르상 특징은 상이하지만 신학적 색채는 유사하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4회, 대상3, 대하1)는 자체적으로

7) Louis Berkhof,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박문재 역, 『성경해석학』 (고양: CH북스, 2008). “제5장 문법적 해석, 제6장 역사적 해석, 제7장 신학적 해석” 참고.

고유 신학이 있으나 그 기본 틀은 레위기 계열이다. 에스겔(3회) 역시 예언서 중에서는 드물게 레위기 계열에 속하는데,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다. 출애굽기는 바달의 어휘 사용이 1회에 불과하지만 회장에 의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바달)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상 레위기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모세오경 중 율법의 핵심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담겨 있다. 주지하듯이 레위기와 신명기의 성격이 다르다. 레위기가 “제의의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면, 신명기는 “말씀의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가 율법에 나타난 엄격한 제의적 성격을 부각시킨다면, 신명기의 율법은 보편적 성격을 지향한다.<sup>8)</sup> ‘바달’의 어휘가 사용된 신명기 계열의 성경은 이사야(2회), 열왕기상(1회), 아모스(1회)이다. 한편 느헤미야(3회)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5회)의 ‘바달’은 그 일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다.

‘바달’의 어휘 분포를 살펴볼 때, 레위기 계열의 성경에서 ‘바달’의 빈도수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영향이 공존하는 느헤미야(3회)를 제외하더라도 레위기 계열의 성경에서 ‘바달’은 전체 43회 중 25회(58%)에서 사용되고 있다. ‘바달’의 어휘 분포 및 빈도수를 고려할 때, ‘바달’은 레위기 계열 신학에서 선호하는 어휘인 것은 분명하다. ‘거룩’은 레위기 계열의 핵심적인 사상 가운데 하나이다. 레위기 계열의 신학에서 ‘바달’의 어휘를 선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바달’의 신학은 무엇보다 ‘거룩’의 개념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바달’은 ‘거룩’의 가치를 담아내는 외연이자 경계이다.

8) 가령, ‘과할’(총회)의 용례를 살펴볼 때 레위기와 신명기의 차이를 알 수 있다. 레위기의 ‘과할’은 속죄 등과 관련하여 제의적 공동체의 모습이 현저하고, 신명기의 ‘과할’은 제의적인 일보다는 말씀(십계명)과 결부지어 표현된다. 구약의 ‘과할’은 신약의 ‘에클레시아’에 해당한다.

## 2. '바달'의 용례 종합

다음 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빈도수 및 용례를 정리한 것이다.

〈표 1〉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용례

| 구약성경<br>(빈도수) | 용례                                                                                                                                                                                                                                                                                                                     |
|---------------|------------------------------------------------------------------------------------------------------------------------------------------------------------------------------------------------------------------------------------------------------------------------------------------------------------------------|
| 창세기<br>(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적 나눔: 물과 물의 나눔(1:6), 공창 아래 물과 위물의 나눔(1:7)</li> <li>시간적 나눔: 낮과 밤의 나눔(1:14)</li> <li>물리적 대비: 빛과 어둠의 나눔(1:4; 1:18)</li> </ul>                                                                                                                                                    |
| 출애굽기<br>(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의 질적 구별: 휘장에 의한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26:33)</li> </ul>                                                                                                                                                                                                                                 |
| 레위기<br>(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물의 절단: 비둘기 새끼의 날개 절단(1:17, 5:8)</li> <li>성속의 구별: 제사장이 거룩한 것(정한 것)과 속된 것(부정한 것) 구별(10:10)</li> <li>성속 구별의 일상화: 음식 규정(11:47), 접촉 규정(20:25, 2회 사용)</li> <li>사람에 대한 구별: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20:24,26)</li> </ul>                                                                     |
| 민수기<br>(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에 대한 구별: 이스라엘 자손 중 레위인을 구별(8:14, 16:9)</li> <li>심판과 분리(배제): 고라 등 반역자 심판과 반역 무리로부터의 구별(16:21)</li> </ul>                                                                                                                                                                       |
| 신명기<br>(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간의 질적 구별: 도피성의 구별(4:41, 19:2, 19:7)</li> <li>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합): 레위 지파의 구별(10:8,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li> <li>심판과 분리(배제): 언약을 위반한 자의 구별(분리)(29:21)</li> </ul>                                                                                                                           |
| 열왕기상<br>(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에 대한 구별: 만민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8:53)</li> </ul>                                                                                                                                                                                                                                   |
| 역대기<br>(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람에 대한 구별: 아론과 그 자손의 구별(대상 23:13)</li> <li>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합): 성가대 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대상 25:1)</li> <li>군대(무리)에서 이탈 및 해산: 갓 사람 중 이탈하여 다윗에게 속함(대상 12:8), 군대를 해산하여 고향으로 가게 함(대상 25:10)</li> </ul>                                                                                         |
| 에스라<br>(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속의 구별: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6:21)</li> <li>관계의 단절: 이방 백성 및 이방 여인과의 관계 단절(9:1, 10:11)</li> <li>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합): 제사장 두목 중 12인을 구별하여 은, 금, 기명을 지키도록 세움(8:24), 이방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하는 직무 수행자로 세움(10:16)</li> <li>심판과 분리(배제): 통회 및 개혁 실행 위한 3일 내 소집 명령을 어길 경우, 총회에서 배제(10:8)</li> </ul> |

|             |                                                                                                                                                                                               |
|-------------|-----------------------------------------------------------------------------------------------------------------------------------------------------------------------------------------------|
| 느헤미야<br>(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의 단절: 이방 사람과의 단절(9:2, 10:28)</li> <li>•심판과 분리(배제): 이방인들을 분리(배제)(13:3)</li> </ul>                                                                    |
| 이사야<br>(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판과 분리(배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에서 분리(배제)되지 않을 것 (56:3)</li> <li>•관계의 단절: 죄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관계를 단절시킴(59:2)</li> </ul>                                            |
| 에스겔<br>(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속의 구별: 제사장이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음(22:26)</li> <li>•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함): 장사할 사람을 택하여 세움(39:14)</li> <li>•공간의 질적 구별: 성전을 둘러싼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42:20)</li> </ul> |
| 아모스<br>(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심판과 분리(배제): 사자의 입에서 양의 귀 조각을 꺼내는 것(3:12)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심판 가운데 남은 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구원</li> </ul>                                                            |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의미와 결부된 특징을 살펴볼 때, 창세기에 서 ‘바달’은 시간과 공간의 나눔이나 물리적 대비와 관련하여 일상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출애굽기는 회장에 의해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공간적 차등을 언급한다는 점에서 레위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레위기는 무엇보다 ‘바달’이 거룩과 결부되어 있으며,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성속의 구별’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접촉 규정과 같이 이스라엘의 일상생활로 까지 확장되어 있다. 민수기에서는 거룩의 위계질서가 현저하며, 고라 등 반역자에 대한 ‘심판과 분리’가 부각되어 있다. 신명기는 직무 수행을 위한 레위 지파의 ‘구별’, 언약을 위반한 자에 대한 ‘심판(분리)’이 등장하고, 회복과 보호의 공간으로서 도피성이 부각되고 있다. 열왕기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목적이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을 자신의 기업(소유)으로 삼기위함이다.<sup>9)</sup> 역대기에서는 ‘바달’의 용례가 아론 및 그 자손의 ‘구별’, 성가대 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함) 등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구별하신 목적(이유)으로 ‘자신의 기업(소유)을 삼고자 하려하심’은 레위기 20장 26절에 근거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바달)하였음이니라”(개역개정). 본고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한글 ‘개역 개정’을 인용한다.

종교적 영역에 나타나며, 더 나아가 군대 혹은 무리에서 이탈하거나 해산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에스라-느헤미야는 이방인과의 '구별', 이방 여인과의 '관계 단절', 성전 직무 수행을 위한 '구별'(택함), 명령 불복종에 대한 '심판' 등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를 거룩(정결)하게 하는 개혁조치와 함께 제사장의 위상 및 성전(성벽)이 부각된다.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죄악으로 인한 것이며,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며, 안식일 준수가 중요하게 부각된다. 에스겔에서도 성전과 안식일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레위기 계열의 성경답게 제사장의 위상이 부각된다. 성전이 공간의 거룩함과 관계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과 관계한다. 포로기 이후에는 시간의 거룩함이 부각된다. 끝으로 아모스는 '심판'의 맥락에서 '바달'을 사용하고 있다.

### III. '바달'의 범주와 의미체계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범주는 공간과 시간의 구별, 사람과 관련하여 성별(聖別) 및 직무수행을 위한 택함, 성속의 구별, 심판 및 분리,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sup>10)</sup>

#### 1. 공간 및 시간의 구별

먼저 살펴볼 '바달'의 범주는 공간과 시간의 '구별'과 관련된다. 창조

10) III에서 다루지 않은 '바달'의 기타 범주로 '이탈 및 해산'과 '물리적 대비'의 용례가 있다. '이탈 및 해산'은 '바달'이 정치적 의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령, 갓 사람 중 '이탈'하여 다윗에게 속한 사건(대상 12:8)이나 군대를 '해산'하여 고향으로 가게 한 사건(대하 25:10)에서 '바달'이 사용되었다. 그런가 하면 일상적 의미 중 '물리적 대비'와 관련하여 빛과 어둠을 '나눈' 창조사건(창1:4 창1:18)에 '바달'이 사용되었다. 물론 창조신학 혹은 후대의 신학에서 '빛과 어둠'을 '선악'의 가치판단으로 다루는 흐름이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창세기에 사용된 '바달'의 경우, 그 일상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

사건에서 ‘바달’은 물과 물의 ‘구별(나눔)’(창1:6), 공창 아래 물과 위물의 ‘구별(나눔)’(창1:7)과 같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사용된다. 한편 공간의 질적 ‘구별(바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휘장에 의한 성소와 지성소 ‘구별’(출26:33)이나 성전을 둘러싼 담에 의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겔42:20), 더 나아가 도피성의 ‘구별’(신4:41; 19:2, 19:7)은 공간의 일상적 나눔이 아니라 공간의 질적 ‘구별’을 의미한다.

공간의 질적 ‘구별’(바달)과 관련하여 창세기에 등장하지 않았던 성막이 출애굽기(26:33)에 등장한다.<sup>11)</sup> 출애굽기에 언급된 ‘바달’은 1회에 불과하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질적으로 구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으므로 공간의 구분은 법전(규례)의 준수와 결부되어 있다. 휘장은 공간을 질적으로 구분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70인경(출26:33)은 휘장으로 하여금 너희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들 중의 거룩한 것’ 사이에 ‘바달’, 즉 ‘한계를 두게 하리라’(διορίζω, set limit to)로 번역하고 있다. ‘바달’의 매개로서 휘장은 성막의 공간을 구분하되, 질적으로 구별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에스겔(22:26)에서는 성전을 둘러싼 담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공간의 질적 구별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분하는 경계로도 작용하고, ‘지성소-성소-성전 뜰’ 혹은 ‘성막-진 내부-진 바깥’을 구별함으로써 공간의 차등화를 가져오고, 더 나아가 해당되는 공간에서 섬기는 자의 신분이 상이한, 이른바 ‘공간의 계급화’가 일어난다. 이후의 성막 및 성전에서 섬기는 자 사이의 공간적 차등으로 인한 계급화의 문제는 이 구절에 뿌리를 둔다고 할 수 있다. 출애굽기 26장 33절의 성소에 대한

11) “그 휘장(תָּכָנִיף, 파로케트)을 갈고리 아래 걸어 늘어뜨리고, 그 휘장으로 생긴 안쪽 공간에 증거대를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거룩한 곳(holy place, 성소)과 거룩한 곳들 중의 거룩한 곳(지성소, holy of holies)으로 너희를 위해 ‘구별하리라’(바달)”(출26:33, 사역)

규정은 위치상으로는 출애굽기에 들어 있으나 그 성격상 레위기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공간에 대한 질적 ‘구별’의 또 다른 사례로 ‘도피성’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은 실수로 범죄한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성’을 요단 동편에 3곳, 요단 서편에 3곳, 총 6곳을 ‘구별’(바달)하셨다. 도피성과 관련된 ‘바달’은 신명기(4:41; 19:2,7)에 3회 언급된다. 하나님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살 수 있도록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닦도록 하셨다(신 19:3). 물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신 19:11-12), 도피성은 “과실치사의 범죄”에 대해 “속죄의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 기능” 및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일정 부분 수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12)</sup> 정중호에 따르면 도피성은 48개의 레위성들 가운데 6개를 ‘구별’한 것이며, 종교권력이 정치권력보다 우위에 있었던 시대에 실질적으로 운영되었고, 왕권이 강화된 솔로몬 시대에는 도피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sup>13)</sup>

출애굽기(26:33)에 나타난 공간의 ‘구별’이 거룩한 공간(성소와 지성소)의 질적 차이를 나타내되, 그 공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의 차별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공간의 계급화’가 특징적이었다면, 신명기에 나타난 공간의 ‘구별’은 과실 치사자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을 지닌 자가 살 수 있는 회복과 보호의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현저하다.

한편 구약성경에서 시간의 ‘구별’로서의 ‘바달’은 낮과 밤의 ‘나눔’(창 1:14)에 1회 쓰였다. ‘바달’의 용례를 살펴볼 때, 공간의 ‘구별’에 비해 시간

12)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실 치사자에는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게르)이나 임시체류자(토샤브, 거류(우거)하는 자)도 포함된다(민35:15). 도피성 제도를 통한 “기본권 보장의 법리”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재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본 기본권 보장의 법리,” 『신앙과 학문』22(2)(2017), 63-82 참고.

13)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 『구약논단』17(4)(2011), 126, 134-135.

의 ‘구별’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간의 질적 ‘구별’로서 ‘바달’은 이방인 및 고자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된 ‘안식일 준수’(사56:6)와 결부지어 사용되고 있다. 이사야 56장 3절에 언급된 ‘바달’은 이스라엘의 총회 가입 조건과 관련하여 표현되고 있다.<sup>14)</sup> 신명기(23:1-3)에서는 ‘신랑 상한 자, 사생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총회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였으며, 이는 에스라 및 느헤미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 및 고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바달)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되고 있다(사56:1-8). 이른바 ‘이방인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안식일 준수’가 부각되고 있다(사56:6). 김동혁에 따르면 제3이사야는 ‘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인가?’라는 물음과 관련하여 혈통과 같은 “민족적 정체성”의 요인보다는 “고백적 공동체”를 강조한다. 특히 ‘안식일 준수’가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sup>15)</sup> 박경철에 따르면 이사야 56장 1-8장에 등장하는 이방인과 고자가 안식일 및 하나님의 언약 준수를 통해 이스라엘 총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언급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로 불러 모으시는 “종말론적 비전”을 보여준다.<sup>16)</sup>

14)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바달)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를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사56:3).

15) 김동혁, “제3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5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2)(2018), 17-25. 성전이 ‘공간의 거룩함’을 지향한다면 안식일은 ‘시간의 거룩함’을 지향한다. 특히 성전과 ‘나할라(땅)’를 상실한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준수는 포로기 이전의 이스라엘과 포로기 이후의 유대 공동체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 위의 논문, 30.

16)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 사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4)(2010), 114-132 참고.

## 2. 사람에 대한 구별: 성별(聖別) 및 택함

사람에 대한 ‘구별’과 관련하여 성별과 직무 수행을 위한 택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결부되며,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일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레위기에서 ‘바달’은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별’(레20:24)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레위기 20장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성별)’하신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sup>17)</sup>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신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왕상8:53).<sup>18)</sup>

이와 연장선상에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및 회중으로부터 레위인을 ‘구별’하였다(민8:14; 16:9)는 맥락에서 ‘바달’이 사용되고 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민8:14), 이스라엘 회중에서 ‘구별’된 레위인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회중을 대신하여 섬기며, “여호와와 언약궤”를 메는 일을 부여 받았다(신10:8). 한편 역대상(23:13)에서는 ‘레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아론과 그 자손’이 ‘구별’(바달)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람에 대한 ‘구별’로서 ‘바달’의 용례를 살펴볼 때, 만민 중에 이스라엘을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하신 것 이외에도 성전에서 고유한 직무 수행이나 신앙공동체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

17)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바달)하였음이니라”(레20:26).

18) 레위기(20:26)와 열왕기상(8:53)에서는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이유(목적)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기 위함’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 출애굽기(19:5-6)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도록 ‘택하여 세우는 것’과 관련된 ‘바달’의 용례가 있다. 가령, 성가대 직무 수행을 위해 ‘구별하여 세운’(바달) 언급과 관련하여 다윗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수금과 비파와 제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했다(역상25:1).<sup>19)</sup> 그런가 하면 신앙 공동체에서 장례 문제는 매우 중요한 업무인데, 장사할 사람을 ‘택하여 세운’ 일(겔39:14)에 바달이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에스라에서는 성전의 은, 금, 기명을 지키도록 제사장 두목 중 12인을 ‘구별하여 세운’ 것(스8:24)에도, 심지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조사하는 직무 수행자를 ‘세운’ 일(스10:16)에도 ‘바달’이 사용되었다.<sup>20)</sup>

이상의 언급에서 ‘바달’은 무엇보다 ‘거룩’(카도쉬)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바달)하여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간의 질적 ‘구별’(출26:33), 가령 지성소와 성소는 그 공간에서 섬기는 자의 지위와 신분의 차이와 결부되어 있다. 더 나아가 진 안과 진 바깥 역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공간의 질적 구분은 공간적 차등으로, 이는 위계질서와 계급화의 문제로 나아간다. 이른바 위계질서(hierarchy)는 그 어원상 ‘거룩한’(히에로스) ‘질서’(아르케)를 의미하는 동시에 신분의 계급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민수기 16장 9-10절에는

19) 배회숙에 따르면 다윗왕이 아삽 그룹의 레위인 음악가(대상16:5-7,37)를 세우고, 희생 제의를 드리는 기브온 산당에 헤만과 여두둔 그룹(대상16:42)을 세워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한다(대상16:4-5,41-42; 대하8:14; 31:2).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의 제사’와 ‘레위인의 음악’이 새로운 예전 형태를 구성하게 되었다. 배회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72-73, 84.

20) 에스라(10장)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레위인과 제사장 등을 조사한 목적은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여인과의 결혼 관계를 끊어버리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사람에 대한 ‘구별’로서 레위인을 ‘성별’하는 동시에 공간에 대한 ‘구별’로서 ‘성막에서의 섬김’이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민수기 16장에 묘사된 고라당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레위인과 제사장 간 갈등이 암시되어 있다.<sup>21)</sup> 민수기 16장에 근거한 사람에 대한 구별, 즉 ‘이스라엘 < 레위인 < 제사장(아론과 그 자손) < 모세’로 표현되는 위계질서는 신분의 계급화를 반영하고 있다. 이른바 거룩함의 정도에 따른 위계질서라 할 수 있다. 웬함은 거룩함의 스펙트럼에 의거하여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성막 바깥 < 성소 < 지성소’로 ‘구별’하고, 이에 상응한 인간의 거룩함에 따른 위계는 ‘이방인 < 이스라엘 < 제사장’으로 ‘구별’한다.<sup>22)</sup>

### 3. 성속(聖俗)의 구별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시고<sup>23)</sup>,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속한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거룩하다(레27:28). 여기서 ‘거룩’(카도쉬)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 차원’(vertical dimension)의 성격을 지니고 그것은 ‘구원’의 문제와 결부된 데 비해, ‘윤리’는 인간 간의 관계, 더 나아가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는 ‘수평적 차원’(horizontal dimension)에서 ‘공존’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거룩과 윤리는 지평을 달리한다.<sup>24)</sup>

21) 민수기 16장에 고라당이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레위인과 제사장 간 갈등이 노정되어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22) 동물과 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여부에 따라 거룩함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부정한 동물과 새들 < 정한 동물과 새들 <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과 새들’ 순이다. Gordon J. Wenham,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박대영 역, 『모세오경』 (서울: 성서유니온, 2015), 150.

23)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 19:2; 사5:16 등).

24) Louis P. Pojman, James Fieser,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CA: Wadsworth, 2009), 4. 종교와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10장 ‘종교와 윤리’ 참고.

성(聖, holiness)과 속(俗, profaneness)의 구별은 무엇보다 레위기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바달’의 수행자로 제사장과 관련된 것으로 제사 관련 규례(레1:17, 5:8)와 회막 출입시 포도주와 독주 금지 규례(레 10:9-10)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으로 음식 규례(레11장 전체, 특히 11:47) 및 부정한 동물(짐승, 새)의 접촉 금지 규례(레22:25)가 있다. ‘바달’의 용례를 레위기에 언급된 순서대로 살펴보면, ① 제사장에 의한 비둘기 새끼의 날개 ‘절단’(레1:17, 5:8)과 관련하여, ②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레10:10, 9절에 회막 출입시 포도주와 독주 금지)과 관련하여, ③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음식 규례와 관련하여 정한 것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부정한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의 ‘구별’(레11:47)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한 짐승 및 새와 접촉하여 몸을 더럽히지 않도록 짐승이나 새의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레20:25)과 관련하여, ‘바달’이 사용되고 있다.

레위기에 나타난 ‘바달’의 용례를 살펴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거룩’의 요구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되, 음식 규례에로까지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바달’의 개념이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의 핵심 사상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시작된 거룩”(레1-7장)이 “제사장을 통해 가정”으로, 더 나아가 “일반 백성들에게 연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먹는 것의 훈련”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sup>25)</sup> 김덕중에 따르면 음식 규례 이면에 장소와 사람에 대한 거룩의 질적 차이가 적용되고 있다. 공간의 거룩에 따른 차이(모든 땅 < 진 < 성막)와 사람의 거룩에 따른 차이(모든 인간 < 이스라엘 사람 < 제사장)에서 알 수 있듯이 거룩은 ‘부정한 영역’, ‘정한

25) 김덕중, “음식 규례와 거룩: 레위기 음식법의 신학과 해석,” 『Canon&Culture』 2(2) (2008), 52.

영역’, ‘거룩한 영역’ 등 세 단계로 ‘구별’(바달)된다.<sup>26)</sup> 이러한 맥락에서 기록에 따른 동물의 차이(부정한 동물 < 정한 동물 < 제물로 쓰이는 동물)가 나타난다. 여기서 부정한 동물은 이방인과, 정한 동물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물로 쓰이는 동물은 제사장과 상응한다.<sup>27)</sup>

#### 4. 심판과 분리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 공동체의 질서와 규범을 위반하는 구성원을 ‘심판’하여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처벌 기제가 필요한데, ‘바달’은 공동체로부터의 ‘심판과 분리’의 맥락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가령, 우상숭배를 함으로써 언약을 위반한 자의 ‘분리’(심판)에 대한 언급(신29:21)이나 사자의 입에서 양의 귀 ‘조각’을 꺼내는 것으로 비유한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암3:12)에 ‘바달’이 사용되었다.<sup>28)</sup> 그런가 하면 이사야(59:2)에 사용된 ‘바달’은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갈라놓은’(바달), 즉 일종의 ‘장벽’을 의미한다. 그 장벽은 심판의 불가피성을 나타낸다.<sup>29)</sup>

26) 위의 논문, 49.

27) 위의 논문, 50. 하나님은 거룩 자체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거룩함이 있는 곳에 생명이 보존되고, 거룩함을 상실할 때 죽음(사망)이 임하게 된다. 거룩함의 스펙트럼에 대해서는 Gordon J. Wenham,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박대영 역, 『모세오경』 (서울: 성서유니온, 2007), 155 참고.

28) 아모스에서는 열방과 이스라엘에 임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다. 아모스 3장 12절은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한 심판 가운데 남은 자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구원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아모스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 혹은 귀 조각을 건져내는 것처럼,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침상 모퉁이 혹은 의자의 방석 일부와 함께 건져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아모스에서 사용된 ‘바달’의 용례는 ‘찢겨진 조각’을 의미하며 ‘심판’의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29) 죄악이라는 ‘장벽’(barriers\_NRSV)으로 인해 하나님의 ‘빛’과 ‘밝음’을 바랄지라도 ‘어둠’과 ‘음울함’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다(사59:9). 그런데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무엇보다 ‘심판과 분리’의 ‘바달’은 아론과 모세에 대한 고라당의 반역과 그에 대한 ‘처벌’ 기사에 부각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 반기를 든 고라당(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은 거룩하지 못한 무리가 되었고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고라당은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세움을 받았으며 회중 가운데 유명한 자들로서 레위인이었다(민16:2,9). 그런데 고라당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총회’(과할) 중에서 높아 보이 고(민16:3), 모세가 스스로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사라르, *ἀρξων*)고 시기 했다(민16:13). 고라당의 문제는 자신들의 거룩함의 근거를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에다)에서 찾은 데 있다. 레위인인 고라당도 아론과 그 자손처럼 ‘제사장직’(케훈나, *ἱερατεύω*)을 얻고 싶어 했고, 모세와 아론처럼 자신들도 거룩하고, 그 회중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신다고 주장하면서 반역을 꾀했다. 거룩하지 못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땅이 고라에게 속한 자들을 삼켰고(민16:31-33),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으며(민16:36), 고라당에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민16:41), 결국 여호와의 진노로 열병이 임하여 14,700명이 죽었다.

거룩의 차이에 근거한 위계질서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것일지라도 고라당의 눈에는 그것이 일종의 계급질서로 보였다. 민수기 16장에서는 아론 및 그 자손의 제사장직과 레위인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내러티브가 전개된다. 민수기 16장 21절에 나타난 ‘바달’은 그 전후 맥락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개념을 추적할 때 참고할 수 있다.<sup>30)</sup>

---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장벽’(바달, 사이를 갈라놓음)은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구속자(중재자)를 통한 구원의 비전으로 해소된다(사59:16-21).

- 30)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바달)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민16:21). 노세영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끊어짐(kareth, 동사 karat)’의 형벌은 공동체의 거룩을 손상시키는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가해진다. ‘끊어짐’으로서의 형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세영,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구약

한편 ‘거룩’을 강조하는 레위기 계열에 위치하는 에스라의 주제의식은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하골라 과할, 골라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있다.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의 명령에 불응할 때 총회로부터 ‘분리’하겠다는 일종의 ‘심판 및 분리’의 의미로서의 ‘바달’이 사용되고 있다. 방백과 장로의 ‘훈시’(에차)를 따라 3일 이내에 오지 아니하면 재산을 몰수하고, 총회에서 배제하겠다는 명령(스10:8)은 실질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이스라엘 백성)을 조사하여 그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를 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5.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

에스라 및 느헤미야에서는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의 의미로 ‘바달’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방 백성 및 이방 여인과의 관계 단절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스9:1-2, 10:11; 느9:2, 10:28).<sup>31)</sup>

에스라 및 느헤미야에서는 모든 이방인과의 관계, 특히 이방 여인과의 결혼관계를 끊어 버릴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에스라 마지막 장(10장)에는 통회와 개혁 조치의 실행이 기술되어 있다. 특히 이방 여자와

논단 21(1)(2015), 9-28 참고.

31) “ (...)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바달)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 ”(스9:1-2).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바달) 하니”(스10:11).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바달)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느9:2). “(...)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바달) (...)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느10:28,30). 여기서 이방 민족과의 혼인을 금지하는 규정은 신명기 7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결혼한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종결되고 있다.<sup>32)</sup> 그런가 하면 느헤미아에서는 모세의 책에 기록되었듯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으므로(느13:1), ‘섞인 무리’(에렘, 외국인들)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바달)하였다(느13:3).

그런데 다윗왕의 계보에 가나안(여리고) 여인 라합이나 모압 여인 룻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나 여호와께 연합하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백성 중에서 ‘분리’(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사 56:3,6)을 고려할 때, 에스라 및 느헤미아에서 엿볼 수 있는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포로기 이후에 처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스라 및 느헤미아에서 사용된 ‘바달’은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한 개혁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함으로써 이스라엘(유다 중심의 신앙 공동체)의 선민의식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배타성은 사회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가령,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방 민족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부분에서는 강한 배타성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결 이데올로기’는 레위기의 성속의 개념으로부터 발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창세기의 빛과 어둠의 대비처럼 성과 속의 엄격한 구분을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에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이 구약성경의 일관된 주장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에스라 및 느헤미아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포로기 이후 강력한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사제그룹의 ‘정결 이데올로기’의 발로라

32)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 일반 백성)의 명부에는 회개하고 이방여인을 돌려보낸 이들의 이름만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볼 수 있다.

## 6. 소결 및 쟁점

‘바달’의 범주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거룩’이다. 거룩은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며, 하나님께 속하거나 드러진 것이라면 공간도 시간도 사물도 사람도 거룩하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범주는 공간과 시간의 구별, 사람과 관련하여 성별 및 직무수행을 위한 택함, 성숙의 구별, 심판 및 분리,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 등이 대표적이다.

공간과 시간의 질적 ‘구별’로서 ‘바달’은 ‘거룩’의 외연 내지 경계선 역할을 한다. 특히 성막 및 성전과 결부된 ‘바달’은 ‘공간에 대한 거룩함’(holiness in space)을 드러내며, 안식일과 결부된 ‘바달’은 ‘시간의 거룩함’(holiness in time)을 드러낸다. 그런데 공간의 거룩함의 질적 차이는 섬기는 사람의 질적 차이와 결부되어 있다. 거룩의 정도에 따른 계급질서의 문제, 레위인과 제사장 간의 갈등 문제, 더 나아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관계 설정 문제 등은 사회윤리적 쟁점이다.<sup>33)</sup>

공간과 사람과 음식 등과 결부된 ‘거룩’은 레위기 계열 신학의 핵심으로 간주된다. 거룩은 기본적으로 윤리적 가치와 지평을 달리하지만 ‘거룩’을 둘러싼 사회윤리적 쟁점이 있다. 이를 테면 ‘거룩’의 가치가 지닌 실천 윤리적 기능과 함께, ‘거룩’이 지닌 이데올로기로서의 문제점도 검토할 필

33) 오늘날 민주주의의 사회문화적 지형에서 ‘거룩의 정도에 따른 계급질서’는 잘 맞지 않는 옷이다. 여전히 ‘거룩의 영역’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성직자 간 혹은 성직자와 평신도 간 ‘위계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각각 ‘왕 같은 제사장’(벧전2:9)이라는 점에서 성직 및 직분의 ‘구별’은 ‘섬김과 봉사의 기능’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구약성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간의 갈등 및 그들의 위상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한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21(2006), 10-32; 배희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68-89 참고. 제사장 집단 간 갈등에 대한 논의는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2013), 9-42 참고.

요가 있다.

‘심판과 분리’의 의미로 사용된 ‘바달’은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내지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기제이다. 여기서 ‘바달’이 함의하는 사회윤리적 쟁점들이 있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에 의해 행해진 ‘심판과 분리’ 문제는 오늘날 종교 영역 또한 국가의 사법체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신앙공동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심판과 분리’를 시행할 경우, 제명이나 출회 혹은 회원자격 박탈 이상으로 행사하기는 어렵다.<sup>34)</sup> 그런데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혹은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배타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태도와 결부된 ‘포용성’과 ‘배타성’이 구약성경에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 IV. ‘바달’의 의미체계에 노정된 사회윤리적 쟁점

이제 연구자는 III의 논의를 바탕으로 ‘거룩’이 지닌 근본 현상과 그것이 지닌 사회윤리적 쟁점을 살펴보고, 바벨론 포로기라는 사회문화적 지형 속에서 ‘공간의 거룩함’으로부터 ‘시간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안식일의 사회윤리적 함의와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인간의 위상을 다루며, 에스라-느헤미아의 ‘골라 공동체’에서 엿볼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34) ‘관용에 관한 편지’에서 로크는 신앙의 영역과 국가 권력 간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교회와 국가가 일치되었던 시기에 종교적 가치를 국가 권력에 의해 실현하고자 할 때, 박해와 고문, 재산몰수 등이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국가에 의한 사법질서가 운영되는 오늘날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구성원이 있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그 구성원을 ‘출교’시키는 것이다. John Locke, William Popple(trans.),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 황경식, “대화와 관용: 그 인식적, 윤리적 근거”, 『개방사회의 사회윤리』(서울: 철학과현실사, 1995), 586-624 참고.

## 1. 거룩의 윤리적 변용과 이데올로기적 문제

오토에 따르면 거룩을 드러내는 “누미노제”에 접촉한 인간은 ‘두렵고 떨리는 감정’인 동시에 ‘매혹적이고 끌리는 감정’을 갖게 된다. 전자가 “두려움의 신비(*mysterium tremendum*)”라고 한다면 후자는 “매혹의 신비(*mysterium fascinans*)”이다. “두려움과 매혹의 신비”로서 누미노제의 이중적 성격을 루터는 “우리가 성소를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하지만은 그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 더 가까이하는 것”으로 설명한다.<sup>35)</sup> 누미노제는 도덕성과는 지평이 다르지만 ‘원죄’에 비견되는 인간의 ‘자기중심성’을 깨뜨림으로써, 칸트의 어법으로 말하자면, 가언명법을 따르던 내가 정언명법을 따를 수 있는 “심성의 혁명”(eine Revolution in der Gesinnung)을 가능케 한다.<sup>36)</sup>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심판(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구원(속죄)하시는 하나님’은 누미노제의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누미노제는 본래 ‘윤리적인 것’과는 무관하다.<sup>37)</sup> 다만 누미노제는 그 개념의 발전과 원숙의 최고 단계에서는 ‘선한 것’으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누미노제의 합리화 및 도덕화가 현저하다.<sup>38)</sup> 사실 ‘거룩’은 ‘도덕성’과 동일한 것은 아니더라도

35) Rudolf Otto, *Das Heilige*, 윤성범 역, 『종교입문』 (서울: 을유문화사, 1971), 159.

36) I. Kant,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in: *Kant Werke* Bd.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698(A50, B54).

37) Rudolf Otto, *Das Heilige*, 윤성범 역, 『종교입문』, 135, 179-180, 누미노제는 히브리어로 ‘qādosch’, 그리스어로 ‘hagios’, 라틴어로 ‘sanctus’ 혹은 ‘sacer’에 해당한다. 위의 책, 135. “구약성서에 있어서의 누미노제”에 관한 논의는 위의 책, 197-205, “신약성서에 있어서의 누미노제”에 관한 논의는 위의 책, 205-216 참고.

38) 가령, 누미노제의 한 측면으로서 “어마어마함”과 같은 비합리적인 차원은 “정의와 도덕적인 의지 및 비도덕적인 것의 제거”와 같은 것으로 합리화되며, 누미노제의 다른 측면으로서 ‘매혹적이고 끌리는 감정’과 같은 비합리적인 차원은 “선의, 긍휼, 사랑”과 같은 도덕적 감정으로 발전한다. 위의 책, 160, 255.

일상적인 차원에서 ‘거룩’은 윤리적 실천과 결부되어 있다. 헤셀에 따르면 “성서는 선(善)이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라고 가르친다. 선은 성(聖)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 선이 산기슭이라면, 성은 산마루다.”<sup>39)</sup> 우리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과 임재를 통해 성화(sanctification)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성화는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신앙공동체와 사회로, 더 나아가 피조세계로 확장될 수 있다.<sup>40)</sup>

김창주에 따르면 거룩을 체험한 후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실천”이 수반된다.<sup>41)</sup> 하나님의 임재라는 강렬한 누미노제를 체험한 후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으며, 이사가 또한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 실천에 나섰으며,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의 종교체험 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다.

레위기에 나타난 장소(성막), 시간(안식일), 사람에 대한 ‘성별(聖別)’로서의 ‘제의적 거룩’의 문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윤리적 거룩’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다.<sup>42)</sup> 가령, ‘거룩’을 핵심가치로 담지하고 있는 레위기(19장)를 살펴볼 때, ‘거룩’의 변주로서 ‘사랑’의 실천 명령을 확인할 수 있다.<sup>43)</sup> 부버에 따르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19:2)는 텍스트와 관련하여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거룩해야 할 백성 간 심연(abyss)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이미타치오 데

39)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김순현 역, 『안식』 (서울: 복있는 사람, 2021), 148.

40) Manfred Marquardt et al., “Sanctification,” Hans Dieter Betz et al., *Religion Past and Present: Encyclopedia of Theology and Religion* Vol.11 (Leiden & Boston: Brill, 2011), 434.

41) 김창주, “거룩: 그 신학적 의의와 실천적 삶,” 『신학사상』 178(2017), 22.

42)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과 윤리의 관계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10-30 참고.

43) 거룩함의 변주로서 “사랑”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조정호, “거룩함의 변주, 사랑,” 『구약논단』 26(4)(2020), 126-149 참고.

이'(imitatio dei, 하나님 닮기)" 개념이다. 부버는 하나님의 형상(צלם, image)을 따라 지어진 인간은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모양(데무트, likeness)을 지닐 수 있다고 말한다. 레위기 19장 2절은 '하나님은 자비하고 은혜로우시므로 너희도 자비롭고 은혜로와라'로 표현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to imitate God)은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길 안에서 걷는 것을 의미한다.<sup>44)</sup>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일상적 행동 지침으로 레위기 19장에서는 '부모 공경'(레19:3), '추수 때 거류민의 몫을 남기기'(레19:9-10), '거짓말 금지'(레19:11), '품군의 정당한 값 지급'(레19:13), '장애인 존중'(레19:14), '거류민'(게르, 나그네) 배려'(레19:33-34) 등의 구체적 실천규례를 통해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레19:18).<sup>45)</sup>

그런데 거룩을 신앙공동체에 적용할 때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과 속의 이분법을 강화함으로써 '금기'라는 신성불가침을 강조하고, 특정 질서체제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새로운 것 혹은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성을 차단한다는 데 있다.<sup>46)</sup> 가령, 에스라-느헤미야에서는 정결 이데올로기가 매우 강하게 작동한다. 정결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는 이방인(외국인)과 혼합되는 데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이다(이에 대해서는 IV.3에서 자세히 다룬다). 신앙공동체의 정결을 위해 이방 백성 및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단절'(바달)시키는 대목에서 거룩의 이데올로기적 문제를 발견할

44) Martin Buber, "Imitatio Dei," in *Israel and the World: Essays in a Time of Cri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6), 72-75.

45)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은 하나님의 가복한 마음, 즉 하나님의 긍휼(‘라훔’)에서 비롯된다. 김창주, “거룩: 그 신학적 의의와 실천적 삶,” 46. 사실 십계명의 강령은 ‘사랑’이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은 ‘이웃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46) 양명수, “신성과 거룩,” 『기독교사상』 42(8)(1998), 107-120.

수 있다. 이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의 문제이다. 'Ⅲ. 1'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과 연합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분리'(바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종말론적 희망을 지닐 수 있다(사 56:1-8). 이방인이라도 안식일을 준수한다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기록은 윤리적으로 변용될 수 있고, 신앙공동체의 특수한 역사적 정황 속에서 '바달'에 의해 표상되는 기록의 이데올로기가 작동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달'에 의한 '경계'는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역사적 정황과 시대정신에 따라 가변적이다. '바달'은 안과 밖을 차단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출입이 가능한 '통로'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sup>47)</sup> '그때 그곳'에서 기록된 구약 성경 텍스트에 대한 '삶의 정황'(Sitz im Leben)을 숙고하면서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겪는 사회 문제 접근과 해결을 위한 재해석의 노력이 필요하다.

## 2. 안식일에 담긴 시공의 기록과 인간의 위상

공간은 시간과 함께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장이다. 공간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자연이 생존할 수 있는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 또한 공간에 의존한다. 로마인의 신화적, 종교적 사유에서 성스러운 공간은 "사원"(templum)으로 명명되었다. 그러니까 사원은 "단절된 곳"이자 "경계지어진 곳"으로 "신에게 봉납"된 공간이며, 이 공간은 "신의 의지가 지배"한다.<sup>48)</sup> 그런데 시간(tempus) 역시 공간처럼 그리스어 '템노'(τέμνω, 나누다)의

47) 가령, 공간적 기록을 지향하는 성막과 성전은, 포로기 이후에 시간적 기록을 지향하는 안식일로 전환되었고, 물리적 성전은 신약적 맥락에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로 변용된다(요2:19,21; 고전3:16-17; 6:19; 엡1:22-23).

48) Heinz Paetzold, *Ernst Cassirer zur Einführung*, 봉일원 역, 『카시러』 (고양: 인간사랑, 2000), 77-78.

‘어근’(tem)을 포함하고 있다.<sup>49)</sup> 근대 과학적 세계관의 영향 아래 공간과 시간의 풍요로운 가치는 삭제되고, 시공은 질적으로 동일하며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것으로 왜곡되었다. 자연은 좌표 평면이나 수식을 통해 수량화될 뿐이다.<sup>50)</sup> 과학적 패러다임이 작동하는 근대 인식론은 그것이 경험론이든 합리론이든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구도로 굳어졌다.

환경윤리 담론에서 전통적인 기독교적 자연관(창1:28-29절)은 인간을 자연에 대한 지배자 내지 정복자로 간주하기에 환경문제의 사상적 근원으로 비판을 받는다.<sup>51)</sup> 화이트는 생태학적인 위기의 역사적 뿌리로 창세기에서 그 근원을 찾았고, 인간의 생태학적인 관심은 종교에 의해 심대한 영향을 받으므로, 창세기의 자연관과 인간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sup>52)</sup>

창조신학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צלם)을 따라 (또 그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이다.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생태학적 위기의 해법이 달라질 수 있다.<sup>53)</sup> 최근 생태신학적인 맥락에서

49) Mircea Eliade,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93-94.

50) 탈가치화된 공간과 시간의 의미 회복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돈, “생태학적 다문화 도시공간을 위한 도시인문학의 근본개념 탐구,” 『인천학연구』 15(2011), 19-29 참고.

51)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카바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다)”에서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전제주의(despotism)의 관점이 부각된다. 창세기 자연관을 대변하는 ‘카바쉬’와 ‘라다’에 대한 재해석과 관련한 논의는 윤영돈·최순옥,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연관과 인간의 책임 문제,” 『환경철학』 24(2017), 183-204 참고.

52) Lynn White,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린 화이트의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으로 제안된 것이 ‘청지기(stewardship) 모델’이다. Jeanne Kay, “Concepts of Nature in the Hebrew Bible,” R. G. Botzler & S. J. Armstrong(eds.), *Environmental Ethics* (Boston & New York: McGraw-Hill, 1993), 193.

53) ‘카바쉬’와 ‘라다’에 대한 생태신학적 해석에 대해서는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는 ‘하나님의 형상’을 ‘관계성’ 혹은 ‘공동체성’으로 규정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닌 ‘관계성’ 내지 ‘공동체성’에 입각할 경우, 신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성’ 및 ‘공동체성’이 복원될 수 있다.<sup>54)</sup>

그런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타난 ‘카바쉬’와 ‘라다’가 지배와 정복의 의미에서 자연을 위한 가꿈과 돌봄의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창세기 2장의 창조기사에서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그것을 ‘경작하며(아바드)’ 지키게”(창2:15) 하셨다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에덴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라’(창세기 2:15)는 것은 정원지기로서 에덴동산을 밭 갈고 가꾸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작하며’의 히브리어는 ‘아바드’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아바드’의 의미를 통해 인간의 위상은 자연의 ‘지배자’(정복자)로부터 자연을 돌보고 책임지는 ‘청지기’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창조세계의 목자로 부름 받아 땅을 경작하고 보존할 책임을 지냈다. 사실 창세기의 ‘아담’은 땅(흙)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다마’와 어원을 같이하듯 아담은 그 땅을 경작하도록 땅으로부터 창조되었다.<sup>56)</sup> 이처럼 ‘아바드’는 창조세계에서 인간의 위치와 책임을 잘 보여준다.

공간과 시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경계로서 ‘바달’은 하나님에 의해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100-107 참고. ‘카바쉬’와 ‘라다’의 주체로서 인간이 지닌 ‘신의 형상’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영돈최순옥,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연관과 인간의 책임 문제,” 190-192 참고.

54)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계성’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201-206; 이동영, 『송영의 삼위일체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269-283 참고(“제18장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은 우리의 참다운 사회적 프로그램인가?”).

55) 최상도, “창세기 1장 28절의 생태신학적 새 번역 시도: 카바쉬와 라다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1. 히브리어 ‘아바드’는 ‘봉사하다,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56) Rolf Rendtorf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d.2, 하경택 역, 『구약 정경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45-50.

명해했으며, ‘바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수행자는 사람이다. 이 때 공간과 시간의 거룩함을 가꾸고 돌보는 수행자로서의 중요한 태도가 ‘아바드’이다.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해 거룩을 명하신 대목(레 19:2)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 거룩의 ‘상호성’을 확인할 수 있듯이,<sup>57)</sup> 거룩의 경계로서 ‘바달’의 청지기인 사람에게 예배하고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아바드’의 태도가 요구된다.

구약에 나타난 공간의 거룩함과 관련하여 성막, 성소, 성전 등을 들 수 있다. 성막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체험한 “거룩의 형상화”이다.<sup>58)</sup>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중앙화가 이뤄지기 전 길갈, 실로, 벰엘, 세겜은 고대 이스라엘의 성소였다. 성막과 성소와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을 체험할 수 있는 구별된 공간이지만 거룩을 특정 공간에 가두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은 화석화되고 역동성을 상실하게 된다.<sup>59)</sup> 때문에 공간의 거룩함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하나님의 경륜의 전개과정에서 변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구약에 나타난 시간의 거룩과 관련된 기준은 ‘안식일’이다. 안식일 개념은 절기(축제)로, 안식년으로, 더 나아가 희년으로 확장된다.<sup>60)</sup>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없는 포로기 상황에서 안식일 준수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관건이었다.<sup>61)</sup> 어떤 면에서 ‘공간 중심의 중

57) 조정호, “거룩함의 변주, 사랑,” 142.

58) 김창주, “거룩: 그 신학적 의의와 실천적 삶,” 30.

59) 위의 논문, 32.

60) 위의 논문, 24-27.

61) (왕정시대) 이스라엘이 인식한 야웨의 거주지는 ‘이 땅’이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신명기 사가가 인식한) 야웨의 거주지는 하늘이다. 다만 이 땅에서 하늘에 거주하는 야웨의 임재를 인식할 수 있는 매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왕상8:22-53)에 표현된 신명기 사가의 관점에 따르면 성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는 곳일 뿐이고(왕상8:29,43),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응답하실 것을 구하고 있다(왕상8:41-43). 이사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종교양태의 변화,” 「기독교사회윤리

교가 ‘시간 중심의 종교’로 전환된 것이다.<sup>62)</sup> 헤셀에 따르면 하루하루는 ‘정전’이고, 안식일은 ‘대성전’이자 ‘시간 속의 지성소’이다. 이른바 ‘시간의 건축술’이다.<sup>63)</sup>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 가운데 안식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사바트’의 개념은 변화의 과정을 거쳐왔고<sup>64)</sup>, 신약 신학의 관점에서 주일과의 일정한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여기서는 안식일이 지닌 사회윤리적 함의에 집중하고자 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종교적 측면을 넘어 서서, 포로기 이후 절대적 빈곤 문제로 인해 안식일에도 일을 강요당하는 사회구조적 상황과 맞물려 있다. 안식일 준수의 강력한 요구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강요된 강제노역에 대한 비판과 대응의 차원에서 개선되었다.<sup>65)</sup> 또한 안식일의 준수는 페르시아 왕에게 받쳐야 하는 세금 징수를 위한, 혹은 사회 기득권의 착취에 의한, 부당한 휴일 노동을 강제하는 노동 시스템을 멈추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sup>66)</sup> 더 나아가 안식일의

28(2014), 171-173.

62) 임상국, “포로기 신학의 사회사적 지평에서 고찰한 안식일 이해,” 『신학과세계』 92(2017), 13.

63)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김순현 역, 『안식』, 34, 49-50, 60, 66, 70, 82, 153, 159-160.

64) 안식일을 의미하는 ‘sabbath’는 동사(‘안식하다’) 형태로는 창세기(2:2)에 처음 나타나고, 명사(‘안식일’) 형태로는 출애굽기(16:23)에 처음 등장한다. 포로기 이전까지 sabbath는 7일 주기의 안식일이 아니라 매달 보름, 즉 ‘망월’ 축제를 의미했다. 7일 주기의 ‘이렛날 휴일’, 더 나아가 7일 주기의 안식일은 포로기 이후의 구약 본문에 등장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 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Sabbath’-망월, 축제일, 휴일 그리고 안식일,” 『구약논단』 24(3)(2018), 293-318 참고.

65) 임상국은 바벨론 포로기 상황에서 포로민들을 대표하는 아론계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에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엄격한 안식일 규정 준수를 법제화 했다고 추정한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제국 치하에서의 강제노역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집트의 제국적 지배와 파라오에 의한 강제노역을 비판하는 출애굽 역사의 전승자료를 통해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임상국, “포로기 신학의 사회사적 지평에서 고찰한 안식일 이해,” 15-28.

66)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경철, “안식일의

쉽과 자유는 모든 생명체(‘콜 바샤르’)로 확대된다(출23:12; 사66:23).<sup>67)</sup>

현대 과학 기술 문명 시대 및 생태학적 위기 시대에 안식일이 지닌 지혜에 대해 헤셸과 몰트만의 견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68)</sup> 헤셸은 기계 문명에 대해 “시간의 거룩함”(Holiness in Time)의 맥락에서 안식일 담론을 전개한다. 그에 따르면 안식일은 현대인이 기술문명 속에서 끝없는 노동에 의해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sup>69)</sup> 창조 기사에서 7일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평온, 고요, 평화, 휴식”이며, 안식이 노동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노동이 안식을 위해 있다.<sup>70)</sup> 현대인에게 있어서 정치적·사회적 자유는 상당 부분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기계 문명과 경제적 인간관계에 예속된 인간의 내적

---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56-74 참고.

- 67)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출23:12).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콜 바샤르, *πᾶσα σὰρξ*, 70인역, all flesh\_ASV)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사 66:23). ‘모든 혈육’에 대해 NAS는 ‘all mankind’로 번역하고 있으나 ‘모든 혈육’을 인간으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가령, 안식일에 ‘침을 누리는 존재의 범주에 인간뿐 아니라 소와 나귀도 포함된다(출23:12).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 준수와 관련한 언급에서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 가축까지 침을 누리도록 규정되어 있다(출20:10; 신5:14). 안식일 준수의 근거를 출애굽기의 십계명에서는 창조 사건(출20:11)에서, 신명기의 십계명에서는 출애굽 사건(신5:15)에서 찾고 있다.
- 68) Jin-Hyok Kim, “The Sabbath-the Messianic Feast of Creation: Some Reflections on Jürgen Moltmanns Ecological Doctrine of the Sabbath,” 『신학논단』 70(2012), 299-329 참고. “시간의 거룩함”으로서 안식일에 대한 헤셸의 논의는 위의 논문, 302-309 참고. “신적인 생태계”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논의는 위의 논문, 310-322 참고. 몰트만은 안식일과 주일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보다 기독교적, 역사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변증법적 관계로 해명한다. 기독교의 맥락에서 주일은 안식일의 소극적 명령으로부터 메시아 시대의 적극적 자유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역사적 측면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후 그리스도의 부활 축제로서 주일을 기념했으며, 종말론적 견지에서 안식일이 하나님의 첫창조라면, 주일은 하나님의 새창조라는 문맥에서 안식일과 주일은 “차이 가운데 통일성”(unity-in-difference)을 지닌다. 위의 논문, 319-320.
- 69) Abraham Joshua Heschel,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김순현 역, 『안식』, 33, 79-82.
- 70) 위의 책, 58-59, 73.

자유는 질식되고 있다. 안식일이 삶의 최상의 가치로서 씬을 부여할 수 있는 지점이다. 한편 몰트만은 안식일에 대한 헤셀의 유대교적 통찰을 메시아적 생태신학으로 발전시킨다. 그는 모든 피조물이 안식할 수 있는 장소(공간), 즉 생태계(ecology)에 관심을 기울인다. 동물뿐 아니라 토지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안식년과 회년에도 주목한다.<sup>71)</sup> 몰트만은 안식일의 휴식 가운데 인간은 자연을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린 창조세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안식일과의 연속성 가운데 주일이 지니는 메시아적인 지평과 종말론적 지향성을 강조한다. 요컨대 헤셀은 ‘시간의 거룩함에 성화된 사람들’을 공간의 거룩함을 위한 전제로 간주한 데 비해, 몰트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땅의 정결’을 택함 받은 이들이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한다.<sup>72)</sup>

### 3.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배타성 문제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신앙공동체의 배타성은 무엇보다 에스라 및 느헤미야서의 ‘바달’의 용례에서 확인되는 문제이다.<sup>73)</sup>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의 ‘구별’(스6:21), 이방 백성 및 이방 여인과의 관계 ‘단절’(스 9:1, 10:11; 느9:2, 10:28), 신앙공동체로부터 이방인의 ‘분리’(느13:3)에서 우리는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가 이방인(외국인)과의 혼합(intermarriage, 통혼)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엿볼 수 있다. 이른바 골라 공동체의 ‘정결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71) 안식일, 안식년, 회년의 생태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김군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113-119 참고.

72) Jin-Hyok Kim, “The Sabbath-the Messianic Feast of Creation: Some Reflection on Jürgen Moltmanns Ecological Doctrine of the Sabbath,” 317.

73) 관계의 단절로서의 ‘바달’.

사실 구약성경에 나타난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시선에는 배타성(exclusiveness)도 있지만 포용성(inclusiveness)도 공존한다. 신명기 개혁 운동이 반영된 신명기 범규정에 따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객)’와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적이다. 안식일 예배 공동체에는 나그네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고아와 과부와 노비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5:14; 12:18, 16:11,14; 26:11 등).<sup>74)</sup> 이방인 혹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로 ‘게르’, ‘토샤브’, ‘네카르’, ‘자르’, ‘노크리’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게르’는 사용 빈도수도 많고, 환대의 대상으로서 ‘객’(나그네) 혹은 ‘타국인’으로 표현되고, ‘토샤브’는 빈도수는 적지만 ‘게르’와 함께 사용되기에 부정적인 의미는 거의 없다. 한편 이방인 혹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표현은 ‘네카르’와 ‘자르’에서 엿볼 수 있고, ‘노크리’의 경우, 외국인에 대한 환대와 혐오가 공존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게르’(pl. 게림)는 ‘객, 나그네, 타국인 등’을 의미하는데, 구약성경에서 84구절(93회)이 사용되고 있고, 신명기(21구절), 레위기(18구절), 출애굽기(9구절), 민수기(9구절) 순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에스라 및 느헤미야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다. ‘게르’의 어휘 용례는 대체로 사회적 약자로서 ‘객’(나그네)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객은 외국적인 유래보다는 자신의 고향을 떠나 타지역에 살아가는 ‘타지역 사람’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로 이해된다.<sup>75)</sup> 그런가 하면 ‘토샤브’는 다

74) ‘나그네 및 사회적 약자의 배려를 위한 신명기의 증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약자 보호 및 나그네 보호,” 『구약논단』 18(3)(2012), 17-27 참고.

75)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2)(2015), 127. ‘게르’는 주로 ‘그의 본래 거주지’와 비교해 볼 때 ‘이방인이 된 자’를 지칭한다. 이방인이 되는 경우로, 개인적 갈등(장자권 다툼으로 게르 생활을 한 야곱), 정치적 박해(모세의 게르 생활), 기근 등의 경제적 요인(야곱 가족의 애굽 이주 등), 전쟁으로 인한 이주(북

른 단어에 비해 사용빈도가 높지 않다(13구절, 14회). ‘토샤브’는 주로 게르와 함께 사용되면서 ‘우거하는 자’(임시 체류자)로 표현된다(창23:4; 레25:6,23,35; 민35:15; 역하29:15; 시39:12 등).

‘네카르’는 ‘이방(네카르 신들)과 같은 표현이나 ‘이방 사람과 절교(분리)를 요구하는 느헤미야(느9:2; 13:30)에서처럼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르’는 30구절(31회)에서 표현되고 있는데, 오경의 법률 본문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할례 받지 않은 외국인’ 내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와 같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노크리’는 45구절(46회)에 표현되고 있는데, 환대의 대상으로 ‘노크리’가 표현되는 성경도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혐오 수준의 배타성이 강한 에스라(7구절) 및 느헤미야(2구절)에도 동시에 등장한다. ‘타국’(노크리)에서 ‘객’(게르)이 된 자들에 대한 배려’를 내포하는 구절(출2:22; 18:3)도 있으며,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이방 여인(노크리아) 롯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도 있다(롯2:10).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성전봉헌 기도에 ‘이방인’(노크리)에 대한 적극적인 포용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왕상 8:41-43; 역하6:32-33, 참고 사56:1-8).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에스라-느헤미야에서 표현된 ‘노크리’는 관계 단절의 대상이다. 에스라-느헤미야에 언급된 이방(노크리) 여인과의 단절을 표현한 구절에서는 플라 공동체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보여준다(스10:2,

---

이스라엘 멸망에 따른 피난민의 유다 정착) 등을 들 수 있다. 라이너 케슬러,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1)(2014), 14-19. 물론 ‘게르’가 외국인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게르)였기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 것’을 명하는 것과 관련된다(출22:21, 23:29; 레19:34; 신10:18-19 등). 이스라엘 자손이나 본토인과 상대 개념으로 쓰인 ‘타국인’(게르)으로 표현된 구절이 많은데, 이들 중 일부는 북이스라엘 피난민일 수도 있고, 일부는 외국인을 지칭할 수도 있다.

10-11, 14, 17-18, 44; 느13:26-27).

이상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오경의 법률 본문에서 이방인(혹은 외국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와 환대의 대상으로 간주되고, 이방인(외국인) 차별 금지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sup>76)</sup> 그런데 에스라-느헤미야에서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혐오 수준으로 부각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환대와 차별금지를 규정한 오경의 법률 본문과 그 정신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므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끈 ‘사로잡혔던 자의 총회’(골라 공동체)가 처한 역사적 상황과 함께 본문 텍스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유대 디아스포라는 이방 원주민들과 혼합된 삶을 살았고, 이는 야훼 신앙을 지향하는 골라 공동체의 정체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포로기 이후 제2성전시대의 유대교는 그 순수성 회복을 위해 배타성을 노정한 일종의 분파주의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77)</sup> 그런가 하면 포로기 이후 골라 공동체를 이끄는 사제그룹은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권력을 행사하였기에 골라 공동체의 재구성을 위해 “정결 이데올로기”(purity ideology)의 맥락에서 이방 문화 및 이방 여인과의 혼합을 강하게 배격하는 게 가능하였다.<sup>78)</sup>

76) 위의 논문, 19-26. 케슬러는 이방인 우호 정책에 대한 근거를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집단적 경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있다.

77)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124. 골라 공동체의 정결(정화)을 위한 에스라에 의한 분리운동은 느헤미야의 성벽재건과 평행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유대-에스라와 예루살렘-느헤미야의 울타리”(스9:9)처럼 이스라엘과 이방 간 경계를 명확히 하였다.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혼합(통혼) 금지’와 배타성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한영, 『구약 텍스트에서 윤리까지』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381-410 참고. 에스라-느헤미야에 나타난 배타적인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신학적 모티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한영,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배타성 문제에 대한 재고,” 『성경과 신학』 57(2011), 66-71 참고.

78) Saul M. Olyan, “Purity Ideology in Ezra-Nehemiah as a Tool to Reconstitute the

그러나 구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신앙공동체의 순수성은 ‘혈통’보다는 ‘토라에 근거한 정체성’을 지향한다. 다윗 왕의 계보에 가나안 여인(라합)도, 모압 여인(룻)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방 여인’은 단순히 ‘혈통’에 근거한 개념이라기보다는 ‘다른 신’을 이끌어옴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적 순수성을 흔탁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방’은 ‘외국의’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정체성을 규정하는 표현으로 볼 필요가 있다.<sup>79)</sup> 다인종다문화다종교 사회에서 특정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포용성과 배타성 간의 균형감을 지닐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포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공동체 내에서 원심력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신앙공동체의 통합성이 해체될 위기에 처할 수 있고, 배타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구심력이 과도하게 작동하여 신앙공동체가 획일화되고 다양성이 질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용례 및 범주를 토대로 ‘바달’의 신학을 구축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윤리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바달’은 공간과 시간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구별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거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개념이고,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규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먼저, 구약성경에서 형성된 ‘바달’의 의미체계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총 41구절)의 범주별 빈도수를 고려할 때, ‘바달’의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공간적 나눔’(7구절), ‘사람

Community,” *JSJ* 35(20014), 1-16, 이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2016), 49에서 재인용.

79) 최종원, “후기 유대 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수용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144-145.

에 대한 구별'(6구절), '심판과 분리(배제)'(6구절), '성속의 구별'(5구절), '직무수행을 위한 구별'(5구절), '관계의 단절'(5구절), '이탈 및 해산'(2구절), '제물의 절단'(2구절), '물리적 대비'(2구절), '시간적 나눔'(1구절) 순이다. '바달'의 의미체계를 구성하는 핵심가치는 '거룩'이다. '바달'의 범주를 외연이라고 할 때, 그 내포는 '거룩'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무엇이나 거룩하다. 성소, 지성소, 성전의 담, 성벽, 도피성은 공간을 질적으로 구별한다. 그런가 하면 사람에 대한 구별은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차등화되며, 제사장 이외에 성가대, 문지기, 느디님, 장사(burial)할 사람 선정, 성물(聖物)을 지키는 일 등 직무 수행을 위한 택함도 중요하다. 한편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 규례와 같은 일상 차원의 성속의 구별도 강조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자는 심판과 분리(배제)의 대상이 된다. '심판과 분리'의 의미로 사용된 '바달'은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내지 순수성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 기제와 결부되어 있다. '바달'의 용례에서 거룩함에 따른 공간의 구분이 빈도수가 높은 데 비해, 시간의 구분은 빈도수(1구절)가 가장 낮다. 다만 거룩함에 따른 시간의 구분에서 '안식일 준수' 문제는 포로기 이후 신앙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사56:6; 겔22:26 등).

'바달'의 의미체계에 노정된 사회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논의를 정리해 보자. 첫째, 거룩은 도덕성과 지평이 다르지만 윤리적 변용의 원천이다. 가령, 레위기의 제의적 거룩은 윤리적 거룩 및 이웃 사랑을 강조한다. 한편 거룩을 신앙공동체에 적용할 때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 이는 거룩 자체가 아니라 거룩의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때문에 에스라-느헤미야의 정결 이데올로기는 시대적 특수성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간의 거룩함'으로부터 '시간의 거룩함'을 지향하는 안식일은 과학 기술 문명에 의해 노예로 종속되는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고, 인간을 포함한 피조세계에 안식(쉬)을 부여함으로써 생태학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특정 시공간에 위치하여 성화된 삶의 소명을 받은 사람마다 피조세계를 돌보며, 봉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의 태도를 지닐 필요가 있다. 셋째,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방인에 대한 구약성경의 상반된 태도(포용성 vs 배타성)의 역사적 정황을 숙고하면서 신앙 공동체의 통합성과 다양성을 균형감 있게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방인(외국인)에 대한 태도를 조율할 필요가 있다. ‘바달’에 의한 ‘경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정황과 시대정신에 따라 가변적이며, 안과 밖을 차단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출입이 가능한 ‘통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의미체계에 기반한 신학적 구성과 그것이 지닌 사회윤리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지면 제약 등의 문제로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의미체계가 그것의 70인역을 통해 신약교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 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비교해보고, 이미 생활세계(Lebenswelt)의 일부로 편입된 온라인 공간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의 상당 부분이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록함을 규정하는 ‘바달’의 개념을 온라인 공간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자는 ‘I. 들어가는 말’에서 세계는 불가피 특정 시공간을 배경으로 생성과 소멸이 반복된다는 언급을 하였다. 한 대상(사람)이 특정 시공간을 점유할 경우, 다른 대상(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을 빼앗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한정하고, 나누고,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피 정의의 문제를 초래한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경우, 우리는 빛을 갠 심정으로<sup>80)</sup>, 섬김의 자세와 함께

신앙공동체와 사회와 자연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

80) 토미즘을 계승한 피이퍼는 정의(justice)의 문제를 마치 빛진 사람이 채무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처럼 설명한다. Josef Pieper, *Über die Gerechtigkeit*, 강성위 역, 『정의에 관하여』 (서울: 서광사, 1994). 72.

## 참고문헌

- 김균진. 『생태계의 위기와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김덕중. “음식 규제와 거룩: 레위기 음식법의 신학과 해석.” 『Canon&Culture』 2(2) (2008), 39-69.
- 김동혁. “제3이사야의 안식일 신학: 이사야 56장 1-8절과 58장 13-14절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24(2)(2018), 12-36.
- 김재민.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본 기본권 보장의 법리.” 『신앙과 학문』 22(2) (2017), 63-82.
- 김창주. “거룩: 그 신학적 의의와 실천적 삶.” 『신학사상』 178(2017), 7-51.
- 노세영. “레위기의 제의적 및 윤리적 거룩.” 『구약논단』 16(4)(2010), 10-32.
- 노세영. “끊어짐(Kareth)의 형벌의 의미: 제사장 전승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21(1)(2015), 9-32.
- 박경철. “안식일의 제의적 의미와 사회정의.” 『구약논단』 17(2005), 56-77.
- 박경철. “이스라엘 포로기 이후 새로운 유대 제의 공동체 구성원에 관한 논쟁: 종말론적 구원의 대상자로서의 이방인과 고자, 그들은 누구인가? - 사56장 1-8절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16(4)(2010), 114-136.
- 배희숙. “역대기에 나타난 레위인의 기능 및 그 의미.” 『장신논단』 45(4)(2013), 67-89.
- 양명수. “신성과 거룩.” 『기독교사상』 42(8)(1998), 107-124.
- 우상혁. “느헤미야서에 나타난 성벽 신학.” 『개혁논총』 40(2016), 33-62.
- 윤영돈. “생태학적 다문화 도시공간을 위한 도시인문학의 근본개념 탐구.” 『인천학연구』 15(2011), 7-41.
- 윤영돈 · 최순옥.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교의 자연관과 인간의 책임 문제.” 『환경철학』 24(2017), 183-204.
- 이궁재. “고대 이스라엘 역사 흐름 속 ‘안식일’(=Sabbath) 개념변화에 대한 신학적 고찰.” 『구약논단』 24(3)(2018), 293-326.
- 이동영. 『송영의 삼위일체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 이사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종교양태의 변화.” 『기독교사회윤리』 28 (2014), 165-192.

- 이영미. “구약의 제사장과 현대의 목회자.” 『신학사상』 160(2013), 9-42.
- 이한영. 『구약 텍스트에서 윤리까지』. 양평: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2017.
- 이한영. “에스라-느헤미야서의 배타성 문제에 대한 재고.” 『성경과 신학』 57(2011), 49-77.
- 임상국. “포르기 신학의 사회적 지평에서 고찰한 안식일 이해.” 『신학과 세계』 92(2017), 9-35.
- 정중호.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과 고대 한국의 별읍(別邑)과 소도(蘇塗).” 『구약논단』 42(2011), 126-145.
- 조정호. “거룩함의 변주, 사랑.” 『구약논단』 26(4)(2020), 126-154.
- 최상도. “창세기 1장 28절의 생태신학적 새 번역 시도: 카바쉬와 라다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종원. “후기 유대공동체의 ‘다문화’(Multiculture)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1(2) (2015), 122-154.
- 케슬러, 라이너. “히브리 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이방인.” 『구약논단』 20(1) (2014), 12-30.
- 한동구. “신명기 개혁운동에서의 약자 보호 및 나그네 보호.” 『구약논단』 18(3) (2012), 10-33.
- 한동구. “포르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21(2006), 10-32.
- 황경식. “대화과 관용: 그 인식적, 윤리적 근거.”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1995, 586-624.
- Berkhof, Louis. *Principles of Biblical Interpretation*, 박문재 역. 『성경해석학』. 고양: CH북스, 2008.
- Buber, Martin. “Imitatio Dei.” in *Israel and the World: Essays in a Time of Crisis*, New York: Schocken Books, 1976, 66-77.
- Diels, Herman und Kranz, Walter. *Die Fragmente der Vorsokratiker I*, Germany: Weidmann, 1974; 김인곤, 강철웅, 김재홍, 김주일, 양호영, 이기백, 이정호, 주은영 역.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 서울: 아카넷, 2007.
- Eliade, Mircea. *Das Heilige und das Profane*. 이은봉 역, 『성과 속』. 서울: 한길사, 1998.
- Heschel, Abraham Joshua. *The Sabbath: Its Meaning for Modern Man*, 김순현

- 역. 『안식』. 서울: 복있는사람, 2021.
- Kant, I. *Die Religion innerhalb der Grenzen der bloßen Vernunft*. in: *Kant Werke* Bd.7.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3.
- Kay, Jeanne. "Concepts of Nature in the Hebrew Bible." R. G. Botzler & S. J. Armstrong(eds.), *Environmental Ethics*. Boston & New York: McGraw-Hill, 1993.
- Kim, Jin-Hyok. "The Sabbath-the Messianic Feast of Creation: Some Reflections on Jürgen Moltmanns Ecological Doctrine of the Sabbath." 『신학논단』 70(2012), 299-329.
- Locke, John, William Popple(trans.), *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1689).
- Marquardt, Manfred et al. "Sanctification." Hans Dieter Betz et al, *Religion Past and Present: Encyclopedia of Theology and Religion* Vol.11, Leiden & Boston: Brill, 2011.
- Otto, Rudolf, *Das Heilige*. 윤성범 역. 『종교입문』. 서울: 을유문화사, 1971.
- Paetzold, Heinz. *Ernst Cassirer zur Einführung*. 봉일원 역, 『카시러』. 고양: 인간사랑, 2000.
- Pieper, Josef. *Über die Gerechtigkeit*. 강성위 역. 『정의에 관하여』. 서울: 서광사, 1994.
- Pojman, Louis P., Fieser, James. *Ethics: Discovering Right and Wrong*. CA: Wadsworth, 2009.
- Rendtorff, Rolf.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 Bd.2. 하경택 역. 『구약 정경 신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 Wenhan, Gordon J. *Exploring the Old Testament: The Pentateuch*, 박대영 역. 『모세오경』. 서울: 성서유니온, 2007.
- White, Lynn.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 Crisis." *Science* 155(1967), 1203-1207.

논문투고일: 2022년 01월 15일

심사개시일: 2022년 03월 14일

게재확정일: 2022년 04월 11일

---

• 국 문 초 록 •

---

본 연구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의 용례를 토대로 ‘바달’의 의미체계로서의 신학을 구축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윤리적 함의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달’은 공간과 시간과 사람과 사물에 대한 구별 및 경계 설정을 통해 ‘거룩’을 담보할 수 있는 기본 개념으로서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공시적 접근으로서 문학비평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바달’의 신학을 구성하기 위해 벌코프가 제시한 성경해석의 원칙인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을 바탕으로 신학적 해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구약성경에 나타난 ‘바달’이 지닌 의미체계는 크게 공간 및 시간의 구별, 사람에 대한 구별(성별과 태함), 성숙의 구별, 심판과 분리, 이방인과의 관계 단절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달’의 의미체계에 노정된 사회윤리적 문제를 거룩의 윤리적 변용과 이데올로기적 문제, 안식일에 담긴 시공의 거룩과 인간의 위상, 이방인에 대한 신앙 공동체의 포용성과 배타성을 중심으로 해명한다. ‘바달’에 의한 경계 설정은 역사적 정황과 시대정신에 따라 가변적이며, 정의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주제어:** 바달, 구별, 공간과 시간의 거룩, 안식일, 포용성과 배타성, 정의

---

